

12

December 2025  
vol. 295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Gift Ideas







**CHANEL**  
FINE JEWELRY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ELINE**  
PARIS





# H U B L O T

OWN IT

갤러리아 EAST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인천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점, 부산 센텀시티점, 대전 Art & Science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 서울, 무역센터점, 판교점, 더현대 대구



# Contents

- 10\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2\_ **SELECTION** 레드와 그린에 만들어내는 선명한 대비로 홀리데이 시즌의 경쾌한 분위기를 완성해줄 아이템 리스트.
- 13\_ **BRILLIANT IMPACT** 극강의 반짝임을 품은 남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6.
- 14\_ **여름이 시작하는 늦가을의 축제,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 글로벌 행사로 선언한 초기(2022년)부터 연례 나들이처럼 매년 방문해온 늦가을의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는 어느새 일본의 심장 같은 도시인 도쿄의 소프트 파워 증대를 절로 떠오르게 할 정도의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다.
- 17\_ **해방의 몸짓이 '무위의 미학'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용의 세계를 선보여온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의 난가를 드디어 서울로도 찾아온 이 역동적인 축제의 끝자락에 전체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르주 로랑 디렉터를 만나봤다.
- 18\_ **MAGIC OF DIVERSITY** 수십 년 동안 행운을 상징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알함브라(Alhambra) 컬렉션이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와 리버서블 링을 출시하며 또 한번 행운의 아이콘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



38



14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컬렉션이 새로운 시선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선보인 네크리스는 메종의 변형 가능한 전통을 계승해 롱 네크리스,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등 다양한 형태로 탈착 가능한 최초의 작품이다. 기요세 로즈 골드, 그레이 머더오브펠,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이뤄진 모티프를 비대칭으로 배치해 생동감을 선사한다. 문의 1877-4128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kr



12



29

- 22\_ **LOVE SIGNALS**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인연, 우정, 연결 등 변치 않는 마음과 영원성 역시 아름다운 로맨틱 주얼리.
- 23\_ **ETERNAL LIGHT** 프렌치 하이 주얼리 메종 부쉐론이 2025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임퍼마넌스(Impermanence)'를 통해 또 한번 그들의 자유롭고 대담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인다.
- 24\_ **THE DREAMER** 매년 설레는 홀리데이에 찾아오는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드림.
- 28\_ **HOLIDAY WISHES** 한 해의 끝, 감사와 사랑을 듬뿍 담아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황홀한 홀리데이 선물 셀렉션.
- 40\_ **BOOTS UP!** 발을 감싸는 뛰어난 보온성, 편안한 착용감으로 무엇보다 겨울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앵글부츠. 소재부터 디테일까지 모두 다른 다섯 가지 스타일의 부츠를 소개한다.
- 41\_ **MAKE IT HOLIDAY** 온 세상이 반짝이는 연말, 무한히 다양하고 화려해진 뷰티템을 만나볼 차례다. 지금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에디션이라 더욱 가슴 설레는 홀리데이 컬렉션.
- 42\_ **EDITOR'S PICK** 깊은 보습 효과의 보디 케어부터 포근한 향의 홈 프레이그런스, 홀리데이 무드를 더하는 립 & 아이섀도까지, 12월 뷰티 서랍장을 채워줄 셀렉션.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The Heritage Reimagined

펜다가 디자인 프로젝트 '폰데리아 펜디(Fonderia FENDI)'를 통해 아티스트 코니 발레세와의 협업적인 리미티드 파카부 백을 선보인다. 프로젝트의 시그니처 컬러 소르베토 옐로와 아나체 블루를 대각선 스트라이프로 적용해 산뜻한 대비를 이루며, 발레세가 직접 빛은 세라의 작품의 디테일을 부드러운 카프 스킨에 더해 파카부 백의 매력을 배가했다. 마이애미 디자인 디스트릭트 펜디 부티크에서 단 5피스 익스클루시브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4-1925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입생로랑 뷰티 메쉬 핑크 쿠션** 혁신적인 마이크로 필터 메시 테크놀로지로 알게 밀착되고 흔적 없는 커버를 돕는 사랑스러운 핑크 레드 케이스의 쿠션 12g 11만2천원대. 문의 080-347-0089 **통 포드 뷰티 아키텍처 소프트 매트 블라밍 쿠션** 블러 필터를 입힌 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준다. 12g 11만2천원대. 문의 1644-3952 **프라다 뷰티 프라다 리빌 메쉬 쿠션** 유분감 없이 매트하고 알게 밀착되어 고급스러운 광택만 남기는 루미너스 매트 파우치를 선사한다. 12g 10만8천원. 문의 080-835-0097 **샤넬 수블리마지 쿠션** 고급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라인의 탁월한 효능을 담은 프리미엄 쿠션 파운데이션 12g 30만원. 문의 080-805-9638 **디올 뷰티 NEW 디올 포에버 쿠션 케이스 - 미스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쇼킹 핑크** 디올 하우스의 첫 레디투웨어 컬렉션인 '미스 디올'을 현대적인 쿠티르 감성으로 재해석한 핫 핑크 컬러의 쿠션 케이스 4만5천원대. 디올 포에버 하이드라 글로우 메쉬 쿠션 12g 11만3천원대. 문의 080-342-95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루미너스 실크 프리마 글로우 쿠션** 패션 하우스의 최고급 실크에서 영감받아 실키하면서도 입체적인 볼륨감을 선사한다. 14g 11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성정민**

## The radiant way

연말 파티 터치업을 위한 파우치 필수 아이템, 쿠션.



# NEW CUSHION

## Exquisite Finish

에르메스가 메종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멀티 프레스 파우더 '로카바 실크 파우더 (Rocabar Silk Powder)'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제품은 가수들이 'Rug a Barres' 라 불렀던 줄무늬 말 담요에서 유래한 로카바 모티프를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그래픽 요소와 컬러로 재해석했으며, 다섯 가지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최초의 멀티 프레스 파우더다. 특히 카레(Carré) 실크 스카프에서 영감받은 컬러 팔레트는 피부에 은은한 광택과 생기를 더하고, 미세한 홀채 입자를 포함해 메이크업 피니시 또는 포인트 파우더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15g 16만6천원. 문의 02-310-5174



## It's My Dream Watch!

늘 여성들의 로망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에서 이번 출시데이에도 워치 리스트를 선보인다. 손에 닿을 듯 반짝이는 유성과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골드 까멜리아,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워치까지. 특히 샤넬이 공동 소유한 스위스 케니시 메뉴팩처에서 제작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선보이는 J12 워치는 더욱 특별하다. 세라믹에 18K 옐로 골드를 접목했으며,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샤넬 특유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속 화이트 세라믹에 옐로 골드 장식으로 완성한 J12 워치 칼리버 12.1, 38mm 모델 외에도 30가지 이상의 특별한 샤넬 J12 워치 컬렉션을 만나보자. 문의 080-805-9628



## Only for Men

2000년대 특유의 빈티지 감성에서 영감받은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의 대표적인 로 투 스니커즈, LV 릴티드. 텅 부분의 LV 로고와 볼드한 신발 끈, 고무 소재의 디미에 패턴 토 캠프, 메종이 직접 선별한 스웨이드 송아지가죽 소재가 돋보인다. 브라운·네이비·블랙 컬러 등으로 선보이는데, 그중에서도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렐 윌리엄스가 디자인한 모노그램 서블러스 패턴의 LV 릴티드 스니커즈는 양각 기법을 활용한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로 브랜드가 전하는 청키한 실루엣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위부터 차례대로) 1백52만원, 1백71만원. 문의 02-3432-1854



## Royal Dignity

강렬한 레드 루비의 광채를 담은 쇼메의 조세핀 아그레드 임페리얼 링은 메종의 영원한 뮤즈인 조세핀 황후가 사랑한 티아라의 대담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얼리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페어 컷 루비와 구조적으로 세밀한 다이아몬드의 조화를 통해 왕실의 기품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센터에 자리한 2캐럿의 루비가 돋보이도록 과감하게 사용한 오픈워크 기술에서 하이 주얼리의 장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02-1670-1180



## Seasonless & Genderless

셀린의 뉴 백, 소프트 트리콕코 박세체는 오로지 고급스러운 램 스킨 소재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트리콕코 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식적 디테일을 과감히 빼앗았다. 세로 개발한 부드럽고 윤기 있는 램 스킨 소재에 소운-백(sewn-back) 공법을 적용한 입체적인 라운드 형태의 플랩 디자인은 착용할수록 유연한 실루엣과 내구성을 자랑한다. 여유로운 사이드로 필요한 소지품을 모두 담을 수 있어 실용성까지 겸비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가방이 있을까. 4백70만원. 문의 1577-8841

## Dear My Love

연말 모임에 사랑스러운을 불러줄 하트 모티프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그래프 하트 셰이프 다이아몬드 아이콘 링** 하트 셰이프에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프레드 프리터 우먼 언컨디션 링** 다이아몬드와 루벨라이트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링 1천9백33만원대. **프레드 프리터 우먼 하드 스톤 네크리스** 커널라언에 머더오브필을 더해 완성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다미아니 벨 에포크 아이어링** 핑크 골드와 커널라언의 조합으로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어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 EXHIBITION



## '과정의 시학'을 담다, <Irreverent Forms>展

한국 도예를 논하자면 정인 정신과 기술에 바탕을 두고 흙을 빚어 가마에 굽는 과정에서 의미 있게 더해지는 즉흥성의 미학이 자주 소환된다. 이로써 한국 도자 고유의 '미적 생동감'을 선사하고, 이처럼 자유로운 접근 방식은 비대칭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불완전함' 속에서 외려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의 찬사(낸시 스펙터)는 이제 익숙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도예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의 도자 작가들에게 단지 영감의 원천이긴 한 게 아니라 넘어서야 할 과제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둔 글로벌 갤러리 글래디스트 서울의 전시 공간(청담동)에서 국내 도예 작가 이현정, 김주리, 김대운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Irreverent Forms>는 도예의 유기적 미학과 결을 같이하되 '완성미'와 '기능성'을 구현하는 매체로 인식되어온 도예에 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실험이 '과정의 시학'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展覽이다. 3인의 작가는 자마다의 방식으로 가장 원초적 재료인 점토(clay)를 사용해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실험 정신을 지향한다. 언뜻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듯 보이지만 작가가 침식되고 분해된 점토 조각을 손의 완력으로 다시 눌러 압축했다는 김주리의 '클레이 타블렛' 연작, 도자 작업과 더불어 흙으로 빚은 달항아리가 물속에서 서서히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상적인 단채널 영상 (무제) 등을 선보인 이현정, 그리고 쿼터적 정체성 속 보편성을 탐색하듯 나와 타자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내는 김대운의 여러 작업이 파괴와 복원, 회복이라는 생태계의 이치를 보여주듯 흥미롭게 어우러진다. 2026년 1월 3일까지. 글 **고성연**

이현정, 'Jar'(2023) 사진:박우진 이미지:서정, 글:메도스트 김주리

김대운, 'Blue Ceramic Culture Monument and Color Coordination'(2022) 사진:김영민 이미지:서정, 글:메도스트 김주리





스트릿 오브 빅뱅  
투르비용 5 데이즈  
파워 리저브 레드 매직  
1억6천만원대 **워블로**.

고양이를 그리는  
화가 루이스 웨인의  
시그니처 모티브를  
패턴으로 더한 바니  
56만원 **로에베**.

화이트 골드 소재에  
페어 세이프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이어링 가격 미정 **그라프**.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라믹 소재로 완성한 디  
아이콘 네크라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광택감이 있는  
컬티드 패치워크를 더한 재킷 7백31만원대 **몽클레르 그레노블**.



레드 프레임이 선명한  
포인트를 주는 캐아이  
선글라스 55만5천원대 **보테가  
베네타 by 케어링 아이웨어**



41mm 엘로 골드 케이스에  
그린 다이얼과 레더  
스트랩이 클래식한 무드를  
배가하는 씨마스터 300  
5천3백만원대 **오메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형태의  
빈티지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크리스탈과 미스 메릴 피나시 소재로 이루어진  
홀리데이 치어스 기프트 19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립 니트와 통성한  
퍼트리밍이  
조화를 이루는  
레드 미디스커트  
2백78만원  
**블루마린**.



벨벳 텍스처가  
돋보이는 플랫폼  
실루엣의 타비 샌들  
퍼프스 가격 미정  
**매종 마르지엘라**.

워블로 02-540-1356 **로에베** 02-3479-1785 **다미아니** 02-515-1924 **몽클레르 그레노블** 0030-8321-0794  
**그라프** 02-2256-6810 **케어링 아이웨어** 02-517-6060 **매종 마르지엘라** 02-792-7780  
**블루마린** 02-6905-3447 **오메가** 02-6905-3301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셀린느** 1577-8841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부쉐론** 02-6905-3322 **루이 비통** 02-3432-1854



부드러운 카프스킨  
소재에 모노그램  
프린트가 특장인  
Speedy PG 반들리데  
25, 25x15x15c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도톰한 니트 짜임과  
위트 있는 트리오  
참 장식이 돋보이는  
파우치 77만원  
**셀린느**.



총 0.49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25개와 화이트·핑크  
골드 & 레드 세라믹의 콤팩트로  
레드 에디션 라지 링  
1천만원대 **부쉐론**.



# Brilliant Impact

케이스부터 베젤, 크라운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를 곳곳에 수놓았다. 극강의 반짝임을 품은 남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레게 마린 크로노**  
그래프 직경 42.3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기요세 웨이브 패턴 다  
이얼과 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  
워 마커, 그리고 9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  
팅한 베젤의 조합이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의 윤수를 연  
상시킨다. 가격 미정. 문의 02  
-6905-3571 **블랑팡 빌레레**  
**울트라 슬림** 로마숫자와 다이  
아몬드 아워 마커, 기다란 중앙  
초침, 3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  
의 균형미가 돋보인다. 시침과 분  
침은 깎아뗀 세이지 나뭇잎 형태  
를 띠며 초침은 하우스 창립자의 이  
나절을 품고 있다. 4일간의 파워 리  
저브가 가능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1151을 장착했다. 4천5백27만원. 문  
의 02-3479-1833 **바쉐론 콘스탄틴**  
**에제리 문페이즈** 직경 37mm 화이트 골  
드 케이스를 2백92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으며, 다이얼에는 5백10개의 다이  
아몬드를 풀 세팅해 하이 주얼리 못지않은  
영롱함을 자랑한다. 특히 1시와 2시 인덱스  
대신 화이트 골드 별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구름이 자리하고, 크라운에서는 로즈 컷 다이  
아몬드가 빛난다. 스트랩은 새틴과 레더 스트  
랩으로 교환 가능하다. 1억2천8백만원. 문의  
1877-4306 **워블로 빅뱅 유니크 킹 골드 주얼**  
**리** 직경 42mm 케이스부터 베젤, 인덱스 등에게  
지 모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HUB 1280

어시스트먼트 김보민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억4천5백5  
만원대. 문의 02  
-3213-2277  
**반클리프 아펠 피에**  
**르 아펠**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직경 38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  
몬드 베젤과 브라운 레더 스트  
랩을 더했다. 특히 얇은 케이  
스를 통해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으며, 남성적인 우아함까  
지 엿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윈 듀에토 주얼리**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  
얼리 메이킹의 기술력을 혼합했다. 직사각  
형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하고 실버  
선레이 다이얼, 유광 블랙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  
랩을 추가해 화려함을 배가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에디터 김하얀**



아트 워크 도쿄(AWT) 2025

여물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축제,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

‘도시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상대적으로 선망받는 메트로폴리스의 지형도는 여전할까? 돌이켜 볼 때, 등급과 계급을 높이기 위한 경쟁 구도는 서울, 상하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을 품은 아시아에서 꽤 치열하게 진행돼왔다. 특히 팬데믹을 기점으로 현대미술을 앞세운 ‘문화도시’의 위상을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시 경쟁력을 둘러싼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단순히 ‘선망의 대상’이 되겠다는 낭만에선 비롯되지 않는다. 지난봄 타계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S. 나이(Joseph S. Nye) 하버드대 교수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각인시킨 개념인 ‘소프트 파워’를 염두에 둔 행보다. 글로벌 행사로 선언한 초기(2022년)부터 연례 나들이처럼 매년 방문해온 늦가을의 축제 ‘아트 워크 도쿄(Art Week Tokyo, AWT)’는 어느새 일본의 심장 같은 도쿄의 소프트 파워 증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생태계의 느슨한 응집력이라든지 다소 소박해 보이는 면면도 지적됐지만, 동시대를 이끄는 아트 허브를 향해 정주하는 길목에서 지금의 도쿄가 지닌 독창적 가치, 예술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을 아우르는 장단점을 감안한 세밀한 짜임새를 바탕으로 해마다 단계적인 진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상업적 페어도, 비엔날레 같은 현대미술 제전도 아닌 현재의 ‘하이브리드’적 속성이 더 커다란 판으로 진화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갖추게 될 정체성이 궁금해진다. 글로벌 미술계의 작은 사교장 같았던 오프닝 파티부터 존재감이 부쩍 강해진 아트 워크 도쿄 2025(11.5~9)는 그 궁금증을 더 짚게 만들었다.

A Growing Platform Brand



작품을 직접 사려는 구매의 동기든, 콘텐츠를 즐기려는 향유의 목적이든, 동시대 예술을 사교파는 장터인 아트 페어를 꾸준히 다니는 현대미술 애호가들은 가을이 되면 아시아만 홀기에도 바쁘다. 올해 캘린더를 놓고 보자면 9월 초에 프리즈 서울이 있다면, 10월에는 아트 타이베이, 11월로 접어들면 초순에는 아트 워크 도쿄(Art Week Tokyo, 이하 AWT), 그리고 중순에는 아트 컬레버레이션 교토(ACK)와 상하이의 웨스트 번드 아트 앤드 디자인(West Bund Art & Design)이 열렸다. 그런데 사실 AWT는 형식적인 결이 사뭇 다르다. 마켓 플레이스(아트 페어) 브랜드를 정체성으로 삼는 다른 행사들과 달리 현대미술을 필두로 한 도쿄의 다채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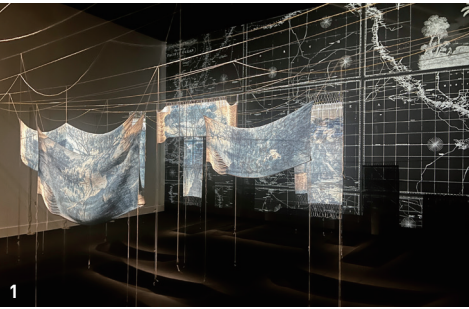
문화 공간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글로벌 쇼케이스를 표방하는 축제형 콘텐츠여사다.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소프트 론칭 형식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내국인 대상만으로도 2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었고, 이듬해부터 확장형 버전으로 해외 방문객을 맞아들였다.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AWT는 글로벌 미술 생태계에서 도쿄의 가을을 물들이는 상징적인 ‘미술 주간’으로 안착한 모양새다(방문객 5만 명 이상). 한동안 고공 행진하던 미술 시장이 수년째 다시 하강 곡선을 타고 있고, 대다수 아트 페어가 힘들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름의 전략으로 독자적 노선을 구축해온 AWT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살펴볼 시점이 아닐까 싶다.

‘도시 브랜드’를 엮고 점진적인 성장을 꾀하다

AWT 플랫폼의 시작점은 다케 니나가와(Take Ninagawa)라는 도쿄의 갤러리를 이끄는 니나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라는 인물이다. 팬데믹의 강타로 위축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미술 시장이 세계적으로 호조세를 타며 이웃 도시들이 아트 페어 열기로 분주하던 2021년 봄, 그녀는 도쿄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다니는 버스 노선도를 그려서 전시 기획에 나섰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도시의 아트 신(scene)을 다각도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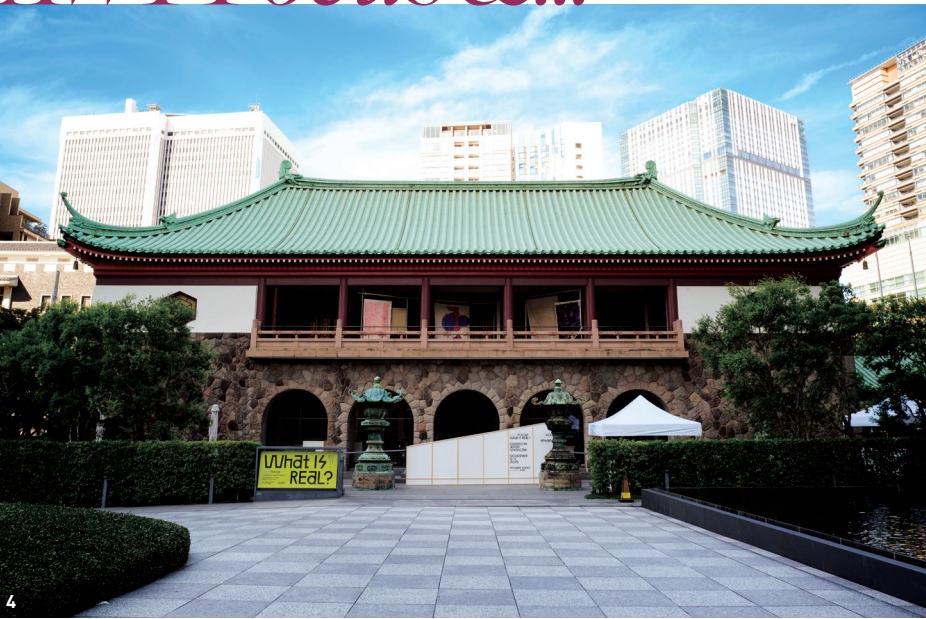
1 AWT 버스. 이미지 제공 AWT  
2 도쿄 국립신미술관(NACT)  
《Prism of the Real: Making Art in Japan 1989-2010》  
전시에서 선보인 조엔 조나스의 영상 작업 《Double Lunar Rabbits》(2010), 작가 소장.  
3 국립신미술관 전시 작품, Noboru Tsubaki, ‘Aesthetic Pollution’(1990), Photo by Taku Saiki. © Noboru Tsubaki, Courtesy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and NACT  
4 도쿄도 현대미술관(MoT) 개관 30주년 기념전에 전시된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의 ‘우미, 손, 해녀’(2025). 5 모리 미술관에서 선보인 후지모토 소우의 작업 ‘House N’(2008). 6 MoT에서 개인전을 연 사사모토 아키(Aki Sasamoto)의 작품 ‘Still from Point Reflection (video)’(2023). © Aki Sasamoto, Courtesy Take Ninagawa and MoT

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안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그리고 도쿄를 방문하는 타지인에게도 ‘우리(와) 현대미술사’를 알리는 교육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스타일 조선일보》인터뷰). 대중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일본의 미술 콘텐츠를 해외에 더 활발히 알린다는 취지에 호의적인 점수를 받아 공적 지원(정부와 도쿄 도청)을 등에 업게 됐고, 니나가와 대표는 자신의 오랜 고객이기도 한 40대 컬렉터이자 사업가 시라이 가즈나리(Kazunari Shirai)와 유기투합해 AWT 공동 설립자로 ‘새 판’을 썼다. 그렇게 해서 갤러리와 아트 스페이스, 공공·사립 미술관 등을 아우르는 50여 개 기관과 조직이 해마다 참여하고, 이 공간들을 도시 기행하듯 여러 루트로 오갈 수 있도록 수십 대의 무료 버스가 다니는 아트 워크가 생겨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레 의문이 들 법하다. 명실공히 아시야를 대표하는 메트로폴리스인 도쿄는 어째서 ‘글로벌 아트 페어’라는 형식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니나가와 대표도 직접 말했듯 ‘사실 도쿄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이 작은 편’이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미술계 슈퍼스타들이 분명 존재하지만(무라카미 다카시, 구사마 야요이, 팀랩 등) 자국의 신진·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컬렉



터층의 규모도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큰손들이 고가의 인상주의 작품까지 기세 좋게 사들이던 버블 시대를 그리워할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글로벌 평창과 다각화를 모색해온 주요 아트 페어 브랜드들이 일찌감치 도쿄에 진출하지 않았을 리 없다. 솔직히 AWT가 탄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구매와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술품 수집’은 다른 세상 얘기로 바라보는 도쿄 시민들과 ‘침착한 발견’이라고 반색하는 외부 방문객의 온도 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그래도 초창기 만 해도 미술관과 갤러리가 ‘아트 주간’이라는 개념을 낱알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부쩍 커진 걸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AWT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질과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식적 참여 기관과 조직의 수는 지속적으로 50개 선에서 꾸러가고 있다. 참여 갤러리 명단에는 살짝 변화가 일어나곤 하지만, 도쿄 국립신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같은 공공 미술관, 모리 미술관과 MoT, 아티존 뮤지엄 등 주요 기관의 목록은 거의 한결같다. 초반부터 자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세심

AWT Focus &...



주제가 있는 미술관 전시를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은 저명한 큐레이터를 동원해오고 있다. 첫째로 시가현 미술관장인 호사카 겐지로(Kenjiro Hosaka), 지난해엔 롯폰기의 상징과도 같은 모리 미술관을 이끄는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 관장이 각각 큐레이팅을 맡았는데, 실제로 반응도 좋았다. 그렇다면 그간 AWT를 꾸준히 지켜봐왔다면, 전시 작가군이나 기획자가 ‘일본 평창적’이라는 지적이 나올지도 모를 참에, 비종 있는 글로벌 큐레이터를 등장시켰다. 독일 소도시 카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현대미술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행사인 도쿠멘타 14(2017년)의 예술감독인 아담 심치크(Adam Szymczyk)가 그 주인공이다.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명 작가/팀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낀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계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라든지, 역사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작품 활동을 해온 아야마 유키(Yuki Iiyama) 작가의 2021년 발표작으로 1930~40년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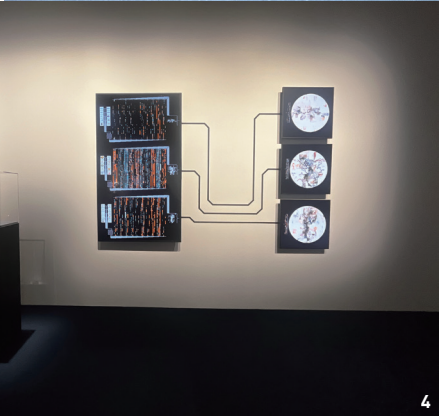
4 AWT의 공식 호텔 파트너인 더 오쿠라 도쿄 부지 내에 있는 오쿠라 미술관의 외관. 1917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해마다 ‘AWT 포커스’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5 올란드 출신의 저명한 큐레이터 아담 심치크가 큐레이터로 참여해 뒷세 동안 연 올해 AWT 포커스의 설치 모습. Photo by Kei Okano. Courtesy Art Week Tokyo. 6 올해의 ‘AWT 바’ 건축가로 선정된 마쓰자와 이치오(ichio Matsuzawa)가 투명 아크릴을 활용해 디자인한 팝업 공간. 7 AWT 바를 위해 아티스트들이 창조한 올해의 칵테일 시리즈. (왼쪽부터) 오자와 쓰요시(Tsuyoshi Ozawa)의 ‘Pangaea’, 침! 폴 프를 스마파! 그룹의 ‘Gold Experience Cocktail’, 아나기 미와(Miwa Yanagi)의 ‘Elevator Girls’. ※ 4~7 Courtesy Art Week Tokyo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조선인 환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일 한국인 레퍼가 등장해 메시지를 전하는 ‘인-메이트(In-Mates)’도 포함되어 있다(작가가 몇 년 전 ‘검열’에 항의를 하기도 했던 작품). 아담 심치크는 2022년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부대 프로그램 중 하나인 ‘AWT 비디오’를 맡기도 했는데, 당시 돋보였던 뉴욕 기반의 일본 작가 사사모토 아키(Aki Sasamoto) 개인전이 올해 AWT 기간에 도쿄의 현대미술관 MoT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 반갑게 다가왔다. 현재 예일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일상의 흔한 사물이나 행동을 다매체를 활용해 비범한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데, 관람자로 하여금 절로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올해의 AWT에서는 건축과 디자인, 마시 등의 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플랫폼인 ‘AWT 바(Bar)’의 존재감도 눈길을 끌었다. AWT 공동 설립자 시라이 가즈나리의 사무실이 있는 멋드러진 건물에서 유명한 신진 건축가에게 설치 작품 같은 팝업 공간 설계를 맡기고 아티스트들이 직접 레시피 제조에 참여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엔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세지마 가즈요

(Kazuyo Sejima, SANAA 소속)가 자문을 맡았다. 미래의 프리츠커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고 있는 후지모토 소우(Sou Fujimoto)의 대대적인 서베이 전시가 모리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기도 했는데(AWT의 파넬레와 더불어 막을 내렸다), 핵심 개념을 전달하면서도 건축 전시의 미장센을 유려하게 풀어낸 바람직한 사례로 꼽힐 만하다. 이 밖에 홍콩 M+와 공동으로 전개한 국립신미술관의 《Prism of the Real: Making Art in Japan 1989-2010》은 일본 현대미술에 대한 조명을 국제적 협업의 틀에서 담아낸 기획전이다.







### 도쿄다운 저력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의 예술 공간

호텔, 디자인, F&B, 패션 등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럭셔리 브랜드들이 집결한 도시인 도쿄에서 아트 마케팅이 활발히 펼쳐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지만 AWT가 공공 차원의 ‘돈 먹는 하마’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흘러가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서 커가고 있는 데는 브랜드들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일단 공식 호텔 파트너인 더 오키투 도쿄(The Okura Tokyo)는 정재계 인사들이 묵어온 유서 깊은 일본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2019년 새 단장해 문을 열었는데, 팬데믹이 수그러든 이래 레노베이션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공식 파트너인 만큼 AWT를 찾는 관람객 중 상당수가 이곳에 묵는 건 물론이고, 이 호텔 부지 내에 있는, 1917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립 미술관 오키투 미술관은 출품 ‘AWT 포커스’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장외 행사를 보자면 에르메스, 루이 비통, 샤넬, 프라다, 시세이도 등 예술 후원과 마케팅에 두각을 나타내온 브랜드들의 매장 디자인과 부속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긴자에 있는 메종 에르메스 옆에 별도 입구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짠 르 포럼(Le Forum)은 북쪽으로 된 아름다운 전시 공간인데, AWT 주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음악, 필름, 조각을 매개로 금속의 다면적 본질을 다룬 엘로디 르수르(Élodie Lesourd), 엔도 마이코(Maiko Endo), 에노키 추(Chu Enoki) 3인전 <Meta>을 선보이고 있다(2026년 1월 31일까지). 긴자에서는 지난해 문을 연 샤넬 매장 건물에 자리한 ‘샤넬 넥서스 홀’에서 시와 예술, 생태학을 결합한 전시 <Synthetic Natures>가 진행 중인데, 리스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소피아 크레스포(Sofia Crespo)와 아티스트 듀오인 인탱글드 어더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12월 7일까지). 또 명품 브랜드들의 건축과 디자인을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오야마로 가면 스위스 건축 회사 HdM의 명작으로 꼽히는 프라다 아오야마, 아트 바젤 등 글로벌 현대 미술 행사를 후원해온 삼페인 브랜드 루이나 등의 전시 공간과 매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고, 가까운 루이 비통 오모테산도 매장 건물 7층에 자리한 전시 공간(Espace Louis Vuitton)도 있다. 서울에서는 카페로 바뀐 ‘에스파스 루이 비통’이 도쿄에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앤디 워홀 전시가 열리고 있다(내년 2월 15일까지).

1, 2 도쿄의 변화가 긴자에 있는 메종 에르메스의 현대미술 전시 공간인 ‘르 포럼(Le Forum)’에서는 음악, 필름, 조각을 매개로 금속의 다면적 본질을 다룬 <Meta>을 선보이고 있다. 엘로디 르수르(Élodie Lesourd), 엔도 마이코(Maiko Endo), 에노키 추(Chu Enoki) 3인 작전. 2026년 1월 31일까지. 3, 4 긴자의 샤넬 매장 건물에 자리한 ‘샤넬 넥서스 홀’에서 진행 중인 전시 <Synthetic Natures>의 설치 모습. 시와 예술, 생태학을 결합한 전시로 리스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소피아 크레스포(Sofia Crespo)와 아티스트 듀오인 인탱글드 어더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5, 6 오모테산도에 있는 루이 비통 매장에 자리한 전시 공간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는 앤디 워홀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2026년 2월 15일까지. ※ 1~6 Photo by 고성연

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12월 7일까지). 또 명품 브랜드들의 건축과 디자인을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오야마로 가면 스위스 건축 회사 HdM의 명작으로 꼽히는 프라다 아오야마, 아트 바젤 등 글로벌 현대 미술 행사를 후원해온 삼페인 브랜드 루이나 등의 전시 공간과 매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고, 가까운 루이 비통 오모테산도 매장 건물 7층에 자리한 전시 공간(Espace Louis Vuitton)도 있다. 서울에서는 카페로 바뀐 ‘에스파스 루이 비통’이 도쿄에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앤디 워홀 전시가 열리고 있다(내년 2월 15일까지). 폭발적인 역동성으로 치고 나가는 서울 스타일과 달리 일본 특유의 조심스럽고 차근차근한 확장형 행보는 AWT가 갤러리들의 점진적 약진과 더불어 큐레이터의 ‘브랜드 파워’와 ‘내공’의 조화를 품은 부티크 패어를 중심으로 여물어가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단지 컬렉터 숫자가 아니라 문화의 여러 영역에 걸친 다층적 포용력이라는 맥락에서 잠재 수요가 꿈틀거리던 도시가 치밀한 글로벌 플랫폼 기획과 만날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 모리 미술관 관장이 아트 바젤 홍콩의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주요 객선인 ‘인카운터스(Encounters)’를 이끌게 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듯, 플랫폼 간의 협업 구도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심화되고 외연적으로 확장될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아직은 하이브리드적 정체성의 제약 내지는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미래를 숙단하기는 이르지만 말이다. AWT는 과연 문화도시의 요건인 ‘자발적 예술의 장’의 면모를 뽐내는데 번개까지 일궈낼 수 있을까?

글 고성연(도쿄 현지 취재)



Brands & Artketing\_12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_서울 편

## 해방의 몸짓이 ‘무위의 미학’으로

반클리프 아펠은 못 브랜드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원천을 뽑는다. ‘벨 에포크’로 불리는 찬란한 문화·예술 황금기에, 프랑스 보석가문 자제들의 낭만 어린 러브 스토리에서 비롯된 시조(1906년)부터 남달랐다. 게다가 창조적 영감을 다른 영역에서 발산하는 역량도 빼어난데, 여기엔 현대무용의 영역을 넓히는 브랜드 차원의 축제형 플랫폼도 큰 지분을 차지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용의 세계를 선보여온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이다. 지난해를 드디어 서울로도 찾아온 이 역동적인 축제의 끝자락에 전제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르주 로랑 디렉터를 만나봤다.



우리가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동시대의 극장을 찾는 이유는 교양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프로그램과 처음 만난 작년 가을의 공연 ‘사람들(Crowd)’은 분명 좋은 의미의 ‘자극’으로 다가왔다.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음악을 배경으로 몸의 근막을 활용하는 댄서들의 세밀하고 절제된 움직임이 자아낸 극도의 몰입! 그 신선한 감동은 울가를 서울을 무대로 3주(10. 16~11. 8)에 걸쳐 이어진 댄스 리플렉션 페스티벌의 흥미로운 라인업을 대부분 소화해보자는 결심으로 이끌었다.

무용수들이 빚어내는 ‘몸의 언어’가 리듬을 타고 무대의 율향, 그리고 그네들의 호흡과 함께 공명하는 순간은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한 듯하다.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는 그들의 몸짓을 온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새 의도나 목적 없이 펼쳐지는 ‘무위의 미학’을 맛덕뜨리게 되기도 한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장소는 의식적 노력의 바깥에 있다”는 말에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고마운 경험이다. 서울의 가을을 수놓은 9팀이 선사한 무용의 파노라마는 저마다의 방식과 결이 매우 다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기승전결’을 지닌 매력적인 작품 같다는 정도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첫 주

1 포르투갈 출신의 안무가 마르쿠 다 실바 페레이라(Marco da Silva Ferreira)가 이끈 ‘카르카사(Carcaça)’의 한 장면. ©Sommerszene Bernhard Mueller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이니셔티브인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페스티벌의 서울 행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2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서울 행사의 포스터. 2022년 3월 런던을 첫 개최지로 삼은 뒤 홍콩, 뉴욕, 교토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어온 페스티벌로 서울에서는 처음 열렸다(전 세계 여섯 번째 도시). 그동안 협업의 인연을 이어온 국내 최대 공연예술 페스티벌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개최 기간에 함께 진행됐다. 3 안무가 로빈 오를린(Robyn Orlin)이 창작한 인형극 춤이 등장하는 70분짜리 작품 ‘바퀴를 두른 사람들(We Wear Our Wheels with Pride)’의 한 장면. ©Jerome Seron 4 안무가 올라 마시예프스카(Ola Maciejewska)의 작품 ‘로이 풀러: 리서치(Loie Fuller: Research)’, 서양 무용계의 전설로 추앙받는 로이 풀러가 창작한 ‘서펜타인 댄스’에서 영감받아 독창적인 45분의 안무를 완성했다. ©Martin Argyroglo 1~4 Courtesy Van Cleef & Arpels

을 선사했는데, 다음 공연은 서양 무용계의 전설적 인물인 로이 풀러의 서펜타인 댄스에서 영감받아 대나무 막대를 안으로 집어넣어 길게 연결한 실크 천을 활용한 독특한 독무 ‘로이 풀러: 리서치(안무가 올라 마시예프스카)와 무릎을 구부린 채 빙글빙글 도는 이탈리아 민속 무용인 풀가 치나타를 계승한 듀엣의 춤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안무가 알레산드로 시아로로니)’였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발놀림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안 마르텐스의 ‘도그 데이즈 오버 2.0’과 뮤지컬처럼 경쾌한 춤과 노래가 흥을 돋우는 로빈 올린의 ‘바퀴를 두른 사람들’(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을 말처럼 인격어로 부렸던 슬픈 서사와 저항의 미학을 품은 작품이다)의 대조적인 느낌도 인상적이었다. 여기에 저항의 메시지를 표현한 ‘카르카사’, 파날레 공연단도 전통과 오라를 선사한 ‘900 여걸, 20세기의 기억’까지.

‘동시대 축제’로의 초대장을 내미는 세르주 로랑 “사람들을 무대로 초대할 때 단순히 작품만 보여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갖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이든 사색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행위니까요.” 개성이 확연히 다른 여러 공연을 토대로 하나의 시퀀스처럼 서사의 리듬이 느껴지는 구성으로 엮어낸 반클리프 아펠의 댄스·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세르주 로랑(Serge Laurent). 미술사와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퐁피두 센터에서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는 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 “음악도, 대사로 없이, 오직 공간 속에서 몸의 순수한 움직임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형식이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예술 형식을 통할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처럼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예술로서의 면모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언어, 텍스트, 영상, 패션, 시각예술 등

모든 요소가 무대 위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안무가 조지 발란신에 창조적 연대로 발레 작품 ‘주얼스(Jewels)’를 창작했을 정도로(1967년 초연) 무용과 깊은 인연을 지닌 브랜드인 만큼 세계 유수의 안무가들과, 그리고 댄서들과 함께 동시대의 다면성을 반영하는 ‘댄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그에게 반가운 도전이었다. “2개의 다른 세계관 속에서 중재자(mediator)로서의 제 역할을 발견하고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사를 맡는 것’이 아니라,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 자체를 지원하고, 그 예술에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 관객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댄스 리플렉션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공유입니다.’” 2022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에서 펼쳐져온 댄스 리플렉션 페스티벌의 글로벌 스펙트럼 덕분에 그는 “어제는 파리, 오늘은 서울, 그다음엔 뉴욕으로 가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 축제에 동참한 댄스 커뮤니티를 역시 ‘노스한 연대’를 통해 지구촌을 누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담은 ‘1도씨라는 작품의 초연을 선보인 허프로젝트(안무가 허성민)도 그 여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위하여라는 목적과 효율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실존에 축제성과 찬란함을 부여한다고 했다(조르조 아감벤). 댄스 리플렉션의 향후 여정에 그렇게 빛나는 축제로 진화해가기를 기대한다. 글 고성연





# Magic of Diversity

1968년 탄생한 후부터 수십 년 동안 행운을 상징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알함브라(Alhambra) 컬렉션. 이번에는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와 리버서블 링을 출시하며 또 한번 행운의 아이콘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기요세 화이트 골드와 블루 컬러가 감도는 칼세도니, 무지갯빛 광채의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이뤄진 네 잎 클로버 모티브가 교차하는 롱 네크리스.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한 15 모티브로 이뤄진 롱 네크리스, 11 모티브로 이뤄진 롱 네크리스, 4 모티브로 이뤄진 브레이슬릿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4 모티브 브레이슬릿 기요세 화이트 골드와 블루 컬러가 감도는 칼세도니, 무지갯빛 광채의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이뤄진 네 잎 클로버 모티브가 교차하는 롱 네크리스가 4 모티브 브레이슬릿으로 변신했다.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블루 칼세도니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티브 각 3개와 기요세 화이트 골드 모티브 3개 중 하나를 워치로 완성해 우아함을 자랑한다.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블 링 (위) 한쪽은 그레이  
머더오브펠, 뒤집으면 기요세 로즈  
골드, 두 가지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서블 링. (아래) 한쪽은 기요세  
화이트 골드, 뒤집으면 칼세도니  
원석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서블 링.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기존 알함브라 네크리스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롱 네크리스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한  
15 모티브, 11 모티브 롱 네크리스 및  
4 모티브 브레이슬릿으로 연출 가능한  
네크리스. 기요세 로즈 골드와 그레이  
머더오브펠, 화이트 머더오브펠을  
매치했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장민



(위부터 차례대로) 티파니 노트 더블 로우 힙지드 밴글 결속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장식의 리본 매듭을 기준으로 2개의 로즈 골드 원형 모티브가 독특하게 이어진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불가리 피오레바 이어링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 스타일이며, 47개의 꽃잎은 영원과 사랑의 약속을 의미한다. 6천50만원. 문의 02-6105-2120 다이아나 마르케리타 링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시트린으로 장식해 데이지 꽃을 구현했으며, 깊은 우정과 순수한 사랑, 진실을 상징한다. 가격 미정. 02-515-1924 포멜라토 투게더 초커 네크리스 컬렉션명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 간의 화합과 유대감을 표현했다. 견고한 듯 부드러운 로즈 골드 소재의 초커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그라프 키스 컬렉션 라운드 파베 다이아몬드 펜던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라인을 교차시켜 사랑을 뜻하는 키스 모티브 디자인을 완성했다. 8백35만원. 문의 02-2150-2320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스몰 & 라지 링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긴 컬렉션으로 스몰 링은 핏팅 디테일의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했으며, 라지 사이즈는 볼드한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구조적으로 배치했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에디터 김하얀



# Love Signals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사랑, 인연, 우정, 연결 등 변치 않는 마음과 영원성 역시 아름다운 로맨틱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시스트: 김보민

# Eternal Light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장인 정신과 하이 주얼리 노하우를 통해 남다른 스타일의 주얼리, 워치메이킹을 선도하는 프렌치 하이 주얼리 메종 부쉐론. 2025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임퍼머넌스(Impermanence)’로 또 한번 그들의 자유롭고 대담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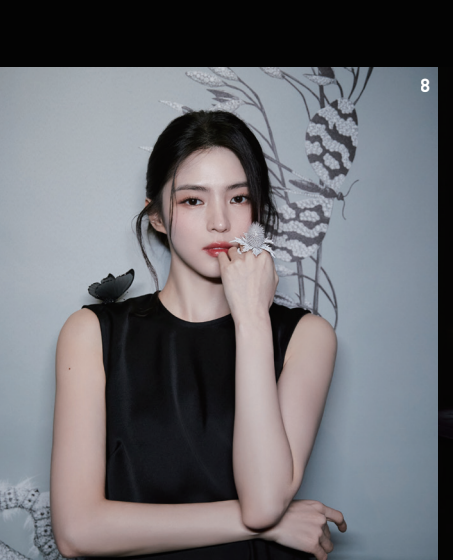
매년 부쉐론이 선보이는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 컬렉션은 메종의 창의적 도전을 반영한 창작품으로 타 주얼리 메종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킨다. 이 까르뜨 블랑슈 컬렉션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Claire Choise)은 올 7월 새로운 컬렉션인 ‘임퍼머넌스(Impermanence)’를 공개하며 자연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창의성에 대한 도전을 담은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드디어 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하는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엠베서더 배우 한소희와 프렌즈 오브 메종 NCT 마크가 참석해 멋진 프레젠테이션 및 전시로 많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임퍼머넌스’는 일본 고유의 심오한 미학이자 철학인 ‘와비사비(Wabi-sabi, 侘寂)’와 일본 특유의 꽃꽂이 예술인 ‘이케바나(Ikebana, 生け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은 일본의 이케바나 장인이 된 듯 식물 대신 아름다운 소재와 원석을 활용해 여섯 가지 식물 조형물을 완성했다. 이 여섯 작품을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빛’. 컬렉션은 가장 밝은 ‘컴포지션 N°6’부터 ‘컴포지션 N°1’으로 가면서 점차 어두워진다. 이는 자연이 점차 소멸해가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작품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분리되어 다채롭게 착용 가능한 주얼리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작품을 분리하면 이어링, 네크리스, 브로치 등으로 착용 가능한 주얼리가 되는 것. 6개의 작품에서 무려 28점의 착용 가능한 하이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다태일한 공정을 위해 부쉐론은 아틀리에에서 1만8천 시간을 할애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진정한 리얼리티를 담고 있다.

‘컴포지션 N°4’를 예로 들면, 시클라멘, 귀리, 줄기, 애벌레와 나비 모티브로 구성된 이 작품은 무려 7백 개에 달하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화이트 골드 시클라멘 꽃잎 모티브에 정교하게 배치

1 부쉐론 임퍼머넌스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컴포지션 N°6-N°1. 2 빛이 사라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더한 컴포지션 N°1. 앙귀버, 스위트피, 나비가 검은 모래 화병에 꽃혀 있다. 3 헤드밴드 또는 브로치로 착용 가능한 앙귀버와 다양한 브로치 형태로 착용 가능한 스위트피. 4 자석 구조를 활용한 나비 솔더 브로치. 5 컴포지션 N°4. 시클라멘, 귀리, 애벌레, 나비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6 회전 구조의 브로치 또는 브레이슬릿. 7 빛에 사용하는 섬유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한 화이트 골드 애벌레 브로치. 8 컴포지션 N°5의 앙귀버 더블 핑거링과 컴포지션 N°1의 나비 솔더 브로치를 착용한 배우 한소희. 9 컴포지션 N°5의 장수풍뎡이 브로치를 착용한 NCT 마크.

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킨다. 애벌레의 잔잔한 털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붓의 소재인 섬유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이 디테일한 묘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기존 부쉐론 아틀리에 장인들의 세밀 노하우를 결합한 신기술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컴포지션 N°3’에서는 레진을 활용한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큰 알수에 블랙 스파멜을 세팅한 작은 봉오리를 매치해 서로 다른 재료의 대비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연의 생명이 꺼지는 듯 빛이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 ‘컴포지션 N°1’은 혁신적인 반타블랙(Vantablack®) 소재를 코팅해 완성했다. 이 소재는 빛을 99.965% 흡수해 ‘무로 사라지는 듯한 극적인 시각 효과를 선사한다.



라지는 찰나의 경이로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했다. 이날 배우 한소희는 ‘컴포지션 N°5’의 앙귀버 더블 핑거링과 ‘컴포지션 N°1’의 나비 솔더 브로치를 착용해 특유의 우아하고 고혹적인 매력을 선보였다. 또 프라이빗 디너에서는 모잠비크산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부쉐론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플뮈 드 팜(Plume de Paon) 웨스천마크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착용했다. 한편 NCT 마크는 임퍼머넌스 컬렉션의 ‘컴포지션 N°5’ 장수풍뎡이 브로치를 착용해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부쉐론은 이번 임퍼머넌스 컬렉션을 통해 하이 주얼리의 경계를 넘어 자연의 소중함과 찰나의 아름다움이 지닌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까르뜨 블랑슈 컬렉션은 올해 역시 기술, 형태, 소재의 한계를 넘어서며 또 한번 혁신적인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켰다. 더불어 많은 하이 주얼리 메종 사이에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며 한 걸음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의 02-3277-0148 에디터 성정민



9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꼬메뜨 링,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완성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 The Dreamer

매년 설레는 홀리데이에 찾아오는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드림.



**1**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의 숫자 5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세팅한 꼬메뜨 링.  
**2**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코코 크러쉬 스물 링,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N°5 네크리스,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브레이슬릿.  
**3** (위부터)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스물 링,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의 블랙 네프라이트 제이드,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리버서를 디자인의 상스 드 샤넬 메달, 18K 옐로 골드에 블랙 가죽과 블랙 레커 다이얼을 매치한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더블 로우 워치.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샹스 드 사넬 메달,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N°5 네크리스.



(위부터) 샤넬만의 콤팩트 모티브를  
더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후프 이어링,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센터  
다이아몬드를 배치한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견고한 블랙 세라믹과 18K  
옐로 골드 케이스로 이뤄진 J12 워치  
칼리버 12.1, 38MM 모두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장민





HOLIDAY



(왼쪽부터 차례대로)  
컬티드 패턴의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080-805-  
9628,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핑크 골드 러브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까르띠에** 1877-4326,  
정육면체를 모던하게 담은 화이트  
골드 소재 아이스 큐브 밴글  
9백2만원 **쇼파드** 02-6905-3390.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아홉  
송이의 데이지 꽃을 표현한 마르케리타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총 14.1캐럿으로 리본의  
곡선 세이프를 우아하게 완성한 달다의  
보우 라운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0030-8321-0441,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골드 비즈  
장식이 색다른 멋을 선사하는 **베를리**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한 해의 끝, 감사와 사랑을 듬뿍 담아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황홀한 홀리데이 선물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MIN YOUNG

WISHES



독일 워치메이킹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도자기 브랜드 마이센 포슬린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  
청자를 연상시키는 약 40mm의 그린  
셀라돈(Celadon) 다이얼에 18세기  
로코코 장식에서 유래한 잎사귀 모양을  
수놓아 동서양의미를 고루 느낄 수  
있다. 모든 피스를 수작업으로 제작해  
다이얼 디테일이 미묘하게 다른 점도  
관점 포인트인 세나토 마이센 워치 3천8백만원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화이트 포슬린 다이얼에 동서양의미를 담은 미스틱 메종을 적용하고 로마숫자와 6시 방향의 검을 형상화한 인덱스, 블랙 레더 스트랩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세컨드 스톱 기능을 통해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안하우스 자동 칼리버 36-16을 탑재했다. 전 세계 1백50점 한정 마이센 워치 3천8백만원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직경 33mm 골조 골드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을 장착하고, 그 주변을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각각 4개의 토파즈와 탐자나이트를  
교차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한  
디바스 드림 워치 5천8백40만원  
불가리 02-6105-2120.



직경 30mm 골조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베젤, 6시 방향의  
날짜창을 더해 포인트 워치로  
손색없는 씨마스터 5천9백만원대  
오메가 02-3479-6025.



터콰이즈 래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장식의 베젤과 크라운을 더하고,  
까나쥬 패턴이 돋보이는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라 미니  
디 마이 디올 워치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02-3280-0104.



기요세 블루 다이얼, 직사각형  
케이스의 상단과 하단에 자리한  
다이아몬드 장식, 유광 블루  
엘라게이터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리베르소 클래식 듀에도  
미디엄 워치 가격 미정  
에거 르콜트르 02-6905-3998.



인덱스를 과감히 생략한 뒤 다이아몬드와  
자개, 사파이어로 표현한 태양과 달,  
밤하늘로 대신해 브랜트 고유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레이디 아펠  
쥬倪 워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직경 34.9mm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과 블루 로마숫자를 세팅하고,  
70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촘촘하게  
장식해 영롱함을 강조한 레이디버드  
컬러즈 문페이즈 미드나잇 블루  
5천2백46만원 블랑팡 02-3479-1833.





독특한 절개 디자인으로 간결한  
 조형미를 전하는 사이니 카프 스킨  
 소재 스몰 퍼즐 판타 백 5백90만원,  
 따뜻한 시어링 소재로 귀여운  
 오리너구리를 구현한 플래티퍼스 백  
 2백90만원, 애프터그림 자카드 패턴을  
 수놓은 올 혼방 소재 스카프 79만원,  
 탈착 가능한 고양이 참이 특징인 발레  
 러너 2.0 루이스 웨인 스니커즈  
 1백40만원 모두 로에베 02-3479-1785.



가방 실루엣을 변형할 수 있으며 숄더백, 크로스 백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카프 스킨 소재 해먹 플립 백 4백80만원, 영국 미술가 루이스 웨인(Louis Wain)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고양이  
 패턴의 플라멩코 클러치 켓 미디엄 백 4백40만원, 포근한 감촉의 헤어리 카프 스킨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발레 러너 2.0 LNY 스니커즈 1백70만원 모두 로에베 02-3479-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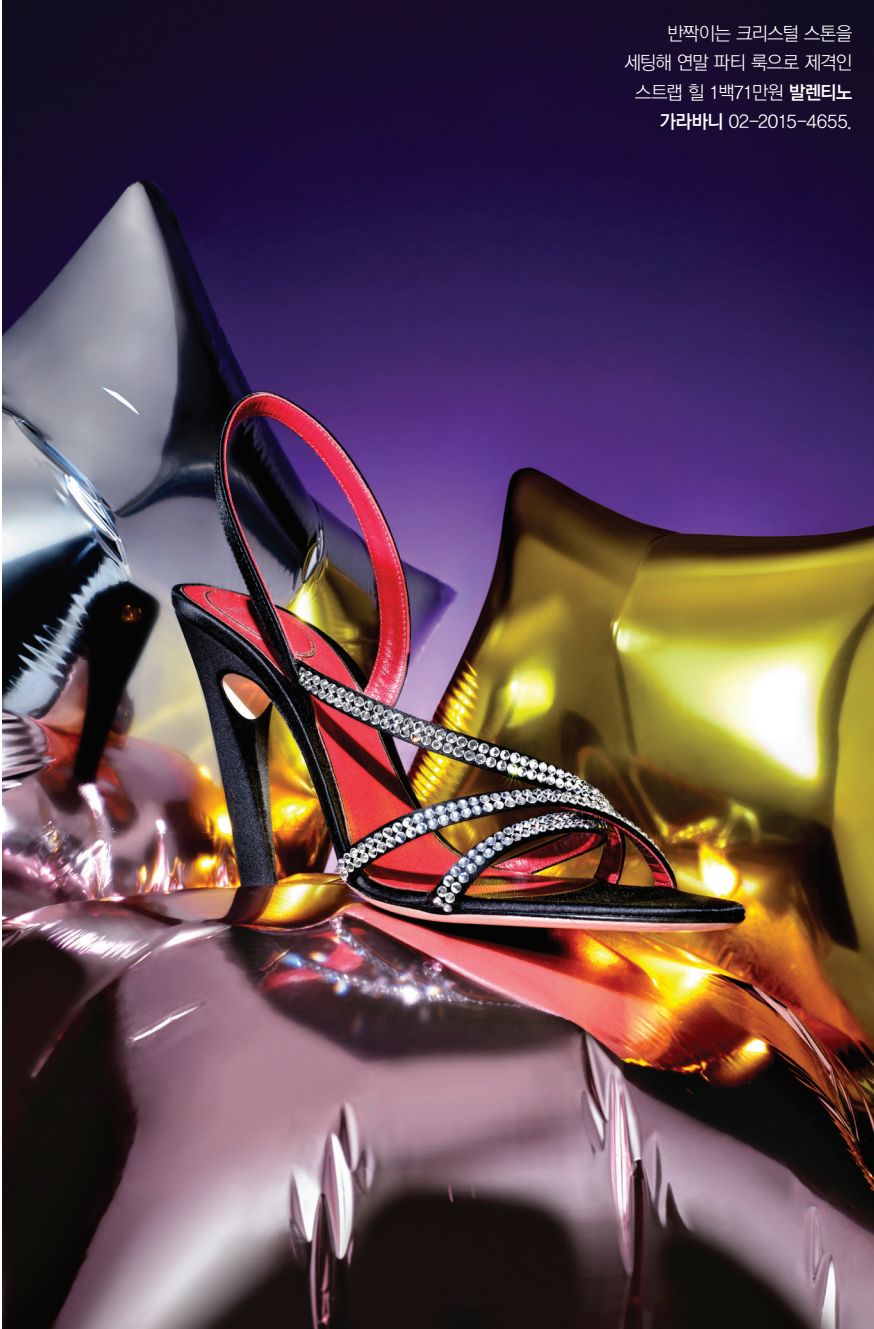




고트 벨벳 소재의 라이트 발레리나 플랫 슈즈 4백63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신뜻한 핑크 컬러, 굽은 메탈 체인과 볼이 시선을 사로잡는 뽀띠 삭 누아르 미니 버킷 백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1.



반짝이는 크리스털 스톤을 세팅해 연말 파티 룩으로 제격인 스트랩 힐 1백7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빛을 반사하는 메탈릭 실버 컬러와 모노그램 패턴이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알마 BB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관능적인 레오파드 프린트 파우치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02-541-7443. 블랙 톱 핸들을 분리하면 클러치 또는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한 미노모르프 미니 백 6백3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손끝에 더블 C 로고를 섬세하게 담은 램 스킨 소재 글러브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왼쪽부터 차례대로)  
심세한 커팅의 건축적 디자인과 스텝  
부분의 레드 포인트가 특징인 아코어  
1841 글라스(2pcs) 1백15만원 바카라  
02-3448-3778. 클래식한 해링본  
패턴이 매력적인 레미 레드 와인 글라스  
18만9천원 **탈프 로렌 홀** 02-6004-  
0221. 그린 크리스탈 소재의 고급스러운  
생-루이 토미 샴페인 글라스(2pcs)  
95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왼쪽부터 차례대로) 바닐라 향을 중심으로  
은은한 플로럴 향과 레더 향, 마지막으로  
따뜻한 아몬드와 진저 향이 어우러진  
판타스맥고리 100ml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상큼한 과일 향에 재스민  
플라워 부케와 부드러운 우디 오크를 더해  
화사한 분위기를 전하는 미스 디올 에센스  
50ml 23만1천원대 **크리스찬 디올** 뷰티  
080-342-9500. 오우드와 로즈 향이 만나  
푸르른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에르메상스  
오우드 알레잔 오 드 퍼퓸 100ml  
44만3천원 **에르메스** 02-310-5174.  
사막에서 자라는 고스트 플라워의 강인함과  
화귀향을 표현하고자 엠버, 매그놀리아와  
샌들우드에 사향 씨 등을 추가한 모하비  
고스트 암슬워 오 드 퍼퓸 50ml  
34만원 **바이레도** 02-3479-1688.  
달콤한 디저트에서 영감받아 진저와  
넛메그, 시나몬 특유의 향이 파스한  
여운을 남기는 진저 비스킷 코롱  
100ml 25만1천원 **조 말론** 런던  
1644-3753. **에디터 김하얀**





# Boots Up!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차례대로) 스페어 토와 구조적  
세이프의 굵, 너타기 없는 에디나의 조화가  
남다른 곳이다 가족 소재 디자인 영블루는  
1책28만엔 **베네딕토 보롤리**, 문의 02-3479-  
6047, 비정형적인 굵과 절개 라인이 돋보이는  
모이 판단 영블루 후기 가장 미장 **로베베**, 문의  
02-3479-1785, 비례 디자인의 스페이치 소재  
도넬리 부터 가격 미장 **랄프 로렌**, 문의 02-  
3467-6560, 발랄 라인부터 발롱까지 이어지는  
섬세한 주름 디테일인 우아한 실크 소재 쇼트  
부츠 가격 미장 **샤넬**, 문의 080-805-9628,  
고무 베벨 스텔의 아웃솔로 편안함  
선샤인은 카프 스텔 소재 영블루 2책33  
만엔 **토즈**, 02-3438-6008 에디터 **김하얀**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Make it Holiday



(왼쪽부터 시계 방향대로) **아워글래스 엠비엔티 라이팅 디어 애트 브러시** 얼굴의 굴곡과 상안검이 부드럽고 촉촉한 인조모로 파우더 타입 제품을 균일하게 연출할 수 있다. 8만2천원. 문의 02-511-1529 **특수마쉬 쿼터메이크 디베 헨드즈** 시야타입을 향유하며 보습을 부름에가 가능하다. 150ml 4만1천원. 문의 02-2054-0500 **크리칸치** 눈을 둘러 루즈 시커 리퀴드 듀오 #999 라벤스틱과 컴플렉스로 구성된 듀얼 릴 제품 6ml & 5ml 6월17일 출시. 문의 080-342-9500 **지바시 프리즘 리브르 하이라이트 N17** 은은한 빛 파우더의 모폴라기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부여한다. 6g 7만4천원. 문의 080-801-9500 **셀라 글로스 G 스텔라 글로우 페퍼미** 아이스타일의 협업을 토대했으며, 컬러와 실버, 화이트 톤으로 데일리라는 물론 파티에서도 메이크업에 안정감있. 8g 13만2천원. 문의 080-343-9500 **키엘 울트라 쉐이스 크림 쉐이스 크림** 쉐이스 제형의 특징. 건조조차 못해 민감해진 피부에 보습을 부여한다. 125ml 9만1천원. 문의 080-822-3332 **색보리 사인 아일 세레도 클리어 오 브랜캐츠** 미세한 결 집합의 골드 컬러로 그윽한 눈매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 3g 4만6천원. 1644-3748 **샤를 드 베르니 31 코니스** 밤하늘처럼 영감받은 블루와 파를 사인 네일 컬러로 특징. 13ml 4만6천원. 문의 080-805-9638 **헤이즈코메비** 및 **콜롬 아티스트 컬러 케어** 608 광택을 더하는 컴플렉스로 색 채도를 탁월한 발광성인 입자력으로 음향 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볼 힘으로 발광도 손쉽게. 0.7g 각기 미정. 문의 080-514-8942 **에디트 김민아**



나스 2025 대즐링 홀리데이 컬렉션  
익스플로잇 립스틱 #블레이 라벤더 컬러  
홀로그램 패키지로 출시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부드럽게 발리는 누디한 로즈  
핑크 컬러. 3.8g 5만2천원대.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신정임

스위스퍼펙션 에센셜  
비타민 크림 바르자마자  
비타민의 항산화  
효과가 느껴지는 듯.  
지친 피부의 활기를  
되찾고 싶을 때 추천한다.  
30ml 29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성경민

조 말론 런던 오렌지 비터스  
디퓨저 부드러운 샌들우드  
베이스에 달콤한 오렌지와  
쌉사름한 비터 오렌지 조합의  
디퓨저로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65ml 16만8천원대.  
문의 1644-3753  
\_by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 Editor's Pick

깊은 보습 효과의 보디 케어부터 포근한 향의 홈 프레그런스,  
홀리데이 무드를 북돋는 립 & 아이새도까지. 12월 뷰티 서랍장을  
채워줄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룩시땅 뉘 페스티벌 사위 오일  
오일 성분을 함유해 보습력과  
세정력 모두 갖춘 보디 클렌저,  
블랙 커런트와 달콤한 바닐라의  
잔향이 오래가 따로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 250ml 3만6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김하얀

지방시 뷰티 르 9 드 지방시  
아이새도우 팔레트 N16 XMAS  
25 홀리데이 무드의 그윽한  
눈매를 완성해줄 아이새도우,  
시머한 블루부터 골드와 브라운  
셰이드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8g 9만6천원대.  
문의 080-801-9500  
\*γ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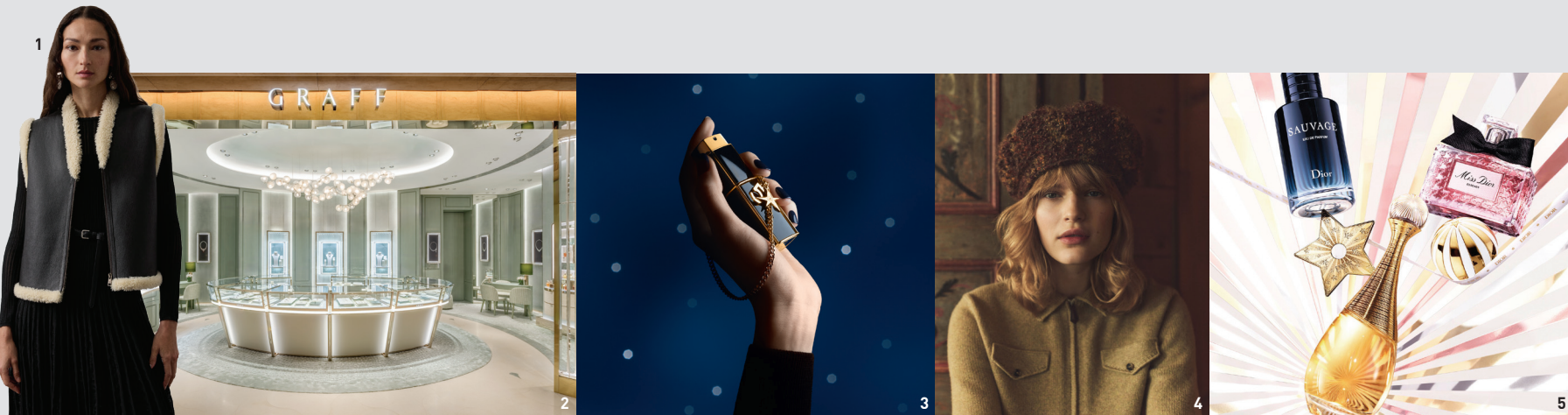
**BATH TIME**  
로라 메  
피로를  
나누는

로라 메르시에 허니 배쓰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달달한 향의 배쓰로 샤워 후 보습감이 오래 지속된다. 미나 허니 디퍼로 손쉽게 양을 조절할 수 있다. 250ml 10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신정임

상태카이 아이 루미에르 리퀴드 아이새도우 #크레앙 리퀴드 타입  
아이새도우, 높은 유지력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메탈릭 피니시의 루미너스  
로즈 컬러로 아이 메이커업에 포인트를 주기 좋아 자주 손이 간다.  
4ml 7만6천원대. 문의 070-4370-7511\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성정민(30대 민강성), 김하얀(30대 건성), 신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지·복합성)



**1 란트 로렌 컬렉션** 탐린 베스트 란트 로렌 컬렉션에서 메리노 시어링으로 제작한 탐린 베스트를 출시했다. 포근한 크림 톤 안감과 다크 브라운 컬러 나파 레더 소재의 투톤 컬러 매치로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면에는 시그니처 하드웨어를 사용한 풀 지퍼 여밈을 더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췄다. 문의 02-3467-6560

**2** **그래프** 신세계 본점 부티크 오픈 그래프가 국내 여덟 번째 공식 부티크를 신세계 본점에 오픈했다. 키네틱 아트에서 영감을 불룩하고도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 아이리언 교차하며 입체적인 물결 디자인과 반투명한 핀 구조가 매장 내부를 완성한다. 전체 채우는 청차밀 인테리어나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 미학을 담아냈다. 문의 02-2150-2320

**3 사별 뷰티 2025 홀리데이 향수 컬렉션** 사별 뷰티에서 가브리엘 사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5가지 심벌인 진주, 밀, 꼬메드, 시자, 가멜리아를 반영한 2025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N'5 오 드 빠르 펴 펄스 스프레이, 'N'5 오 드 빠르 펴, '코코 마드모아젤' 펄리 바디 오일, '상스 오 스피렌디드 오 빠르 펴' 등 다양한 향수 제품을 홀리데이 기프트로 제안한다. 문의 080-805-963

**4 로로피아나 2025 F/W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이탈리아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2025 F/W 홀리데이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낮과 밤, 스키와 이브닝웨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룩으로 구성했다. 모헤어와 부클레의 옴브레 톤과, 벨벳 등 다채로운 텍스처와 옛 영화의 세피아 효과 영감을 받은 컬러 팔레트가 특징이다.  
문의 02-6200-7799

**5 크리스찬 디올 뷰티 2025 디올 홀리데이 아트 오브 기프팅** 크리스찬 디올 뷰티에서 2025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디올 하우스의 대표 향수 기프트 셀렉션을 제안한다. 유쾌하고 환상적인 꿈의 서커스에서 영감받아 신비로운 세계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색채의 일러스트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이 담긴  
아이코닉한 향수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  
342-9500

**6 부세론 연말 캠페인, '원터 원더랜드'**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세론에서 연말 캠페인 '원터 원더랜드'를 공개했다. 매종의 스니그처 아이콘인 콰터(Quatre), 세뱀 보헨(Serpent Bohème), 플럼 드 펄(Plume de Paon)을 서리가 내려앉은 풍경부터 물결치는 사파리 등의 배경으로 다양하게 담았으며, 엠베서더 한소희가 세뱀 보헨과 콰터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7-0148

**7 글라슈테 오리지널 글라슈테 오리지널×마이센**  
독일 위취메이커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마이센 포슬린 매뉴팩처가 협업해 수공 채색 포슬린 다이얼을 품은 세나토 마이센 리미티드 에디션용 출시했다. 3가지 다이얼 디자인으로 선보이며, 양방향 자동 02-496과 1백 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67-6426

**8 불가리 홀리데이 디바스 드림 팝업** 로만 주얼리  
불가리가 매장을 대표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을  
테마로 한 디바스 드림 팝업을 현대백화점 평교점  
에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브를 활용한 디바스 드림 라임팅  
로 빛의 공간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으며,  
메인 테마인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최신 주얼리는  
물론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6105-2120

**9 에르메스 몰리타 40 부츠** 에르메스에서 낭만적인 파리자연 감성을 담은 몰리타 40 부츠를 선보였다. 키톤 힐과 레더 소재, 스트랩, 나노 사이즈 버클 등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이며, 날렵한 앞코와 깊이 파인 실루엣으로 발의 곡선을 우아하게 강조한다. 문의 02-642-6622

**10 로에베** 2026 S/S 프리컬렉션 캠페인 로에베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메달  
릭 디테일을 더한 다양한 아이템을 조영하는 2026  
S/S 프리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  
서는 인타르시아, 자수, 광택 등 제품의 디자인과 텍  
스처를 강조했다. 문의 02-3479-1785

**11 루이 비통 LV** 루이 비통에서 남성복 아티스트 디렉터 파렐 윌리엄스의 워크웨이 감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남성 거장 제품 라인 'LV E치마'를 선보였다. 하위스의 상징인 ZS를 디자인의 스웨이드 전면 포켓, 모노그램 플라이 장식에 매치한 V자형 카바니에 등 다양한 디테일을 담았다. 여행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이고 남성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으며, 하위스 스타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2-1854

**12 포멜라토** 미국 LA 로데오 드라이브에 플래그십 부티크 오픈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메종 포멜라토가 미국 LA의 로데오 드라이브에 새로운 플래그십 부티크를 오픈했다. 할리우드 라센스 스타일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입구와 프랭크 로이드 Рай트의 상징적 작품인 에니스 하우스의 마야 양식 등이 조화를 이룬다. 문의 0030-8321-0441







[louisvuitton.com](https://louisvuitton.com)

# LOUIS VUITTON